

A. Gartner를 통해 본 미국 통합교육론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고찰*

홍정숙**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요 약》

통합교육은 교육정책과 교육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상적 문제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와 사상적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논의에는 미국 통합교육의 영향이 다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통합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대표적인 통합교육론자인 A. Gartner의 통합교육론과 그 사상적 배경을 미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60·70년대에 Gartner가 주장한 소비자 개념과 소비자중심주의는 그가 1980·90년대에 제창한 통합교육론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으며, 전자가 후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Gartner의 통합교육론은 이념적으로는 지지할 만한 것이지만 집단성을 강조하여 다양성을 간과한 한계를 내포한다는 점과 소비자중심주의의 한 핵심요소인 효율성의 강조가 특수교육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바탕이 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A. Gartner, 소비자, 소비자중심주의, 통합교육론

1. 서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의 개념이 물리적 통합에 편중된 것이었다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통합교육 개념은 교육과정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법 규정의 발전적 재설정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또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학부모와 아동의 인식에 대한 조사 및 통합교육의 조건이나 방법론 등에 대한 것이며, 통합교육이 등장한 사상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본 논문은 2008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jshong@daegu.ac.kr)

통합교육은 단순히 교육 정책이나 교육 방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교육에 관한 철학적 접근에 대한 문헌은 찾기 어렵고, 이에 관한 구체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에는 미국의 통합교육론과 제도의 영향이 다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Dyson들이 "1990년대에 미국의 inclusion이 영국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Dyson & Millward, 2000, 3)고 서술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미국 통합교육의 동향이 일본 특수교육개혁의 참고가 되고 있다"(竹嶋·金田, 1998, 248)고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통합교육론은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통합교육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도 미국 통합교육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이를 위한 전제로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 걸쳐 일반교육주도(Regular Education Initiative: REI, 이하 REI) 논쟁과 inclusion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들 논쟁은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특수교육비판 및 교육개혁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교육론은 이 시기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주장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통합교육론자인 A. Gartner를 통해 미국의 통합교육론과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인물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점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취지에 비춰 Gartner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Gartner는 REI 논쟁과 inclusion 논쟁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며 완전통합(full inclusion)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미국의 통합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통합에 대한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incl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1990년대에 특수교육개혁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미국 통합교육론은 특수교육 영역 밖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거론되면서도(Skrtic, 1995, 77, 81; 中村, 岡, 조원일, 2005, 307),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증된 바는 없다. Gartner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휴먼 서비스(human services)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다수의 논문과 저서에 담아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그는 Lipsky와 함께 REI 논쟁과 inclusion 논쟁에 참여하여, 통합교육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까지의 Gartner 사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장된 통합교육론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사상적 연관성을 밝힌다면 특수교육 영역 밖의 사상이 통합교육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통합교육론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통합교육론의 이해를 돕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예를 들어, 김정권, 한현민, 2001; 민친식, 이해현, 2001; 이인경, 2003; 2004). 이 선행연구들은 분석시기를 REI와 inclusion 논쟁이 발생한 시기에 한정하여, 각 주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국 통합교육론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장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통합교육론자인 A. Gartner의 통합교육론의 논리구조 및 그의 통합교육론 주장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미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밝힘으로써, 미국의 통합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Gartner의 사상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Gartner의 통합교육론의 논리구조를 미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밝힌다.

셋째, 1960·70년대의 Gartner 사상과 1980·90년대 통합교육론의 연관성을 두 사상 간의 유사성과 일관성에 근거하여 구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의 Gartner의 저서·논문, 1980·90년대의 통합교육론과 관련된 Gartner의 저서·논문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그 밖에도 미국의 통합교육론과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II. A. Gartner의 소비자 개념과 소비자중심주의

본 장에서는 1960·70년대에 Gartner가 참여한 활동과 그 의의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고, 이 시기 그의 사상적 핵심을 이루는 소비자 개념과 소비자중심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70년대의 Gartner의 활동과 의의

Gartner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준전문가(paraprofessional)를 교육하고 이들에 관해 연구하는 활동에 주력하며, 당시 전개됐던 준전문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다양한 휴먼 서비스 분야에 준전문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신직종(New Career)의 개념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준전문가에게 휴먼 서비스 관련 각 기관에서 경험과 훈련, 현직 교육 등을 쌓게 하여 전문가가 되는 길을 열어 주려 한 것이다. 준전문가의 대부분은 빈곤층, 특히 흑인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리티 집단의 구성원이었으며, 준전문가 운동의 목표는 빈곤층이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는 것이었다(홍정숙, 2006a 참조).

Gartner가 주장한 준전문가 운동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정규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 사회사업, 보건, 가족계획, 치안, 교정 등 휴먼 서비스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Gartner, & Riessman, 1974b, 254). 두 번째는 권력의 재배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준전문가 운동에 의해 빈곤층과 마이너리티가 직업, 교육의 기회,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많이 갖게 되었다(Gartner, & Riessman, 1974b, 254; Gartner, Jackson, & Riessman, 1977, 2). 세 번째는 휴먼서비스 기관과 사회변혁의 가능성이다. Gartner는 준전문가들의 태도와 인식이 급진적이지 않더라도 빈곤층과 마이너리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전문가가 각종 기관과 학교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곳의 분위기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Gartner, Jackson, & Riessman, 1977).

2. 소비자 개념

준전문가 운동의 실천과 더불어 1960·70년대에 Gartner는 '소비자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였다. 소비자에 대해 그는 이중구조로 인식했는데, '사회'에서의 소비자와 '휴먼서비스'에서의 소비자가 그것이다.

1) 사회에서의 소비자¹⁾

Gartner에 따르면 '소비자'는 종래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스템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류에서 배제된 문화 가운데 놓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그는 종래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1970년대의 미국 사회를 '서비스 사회'로 규정했으며, 서비스 사회의 선도자는 마이너리티, 여성, 청년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권력과 지위를 박탈당한 집단'이며, 선도자에게 필요한 조건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는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 여성, 청년 모두는 그들이 사회에서 무력하다는 점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도자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즉 주로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쉬운 입장에서 공민권 운동을 비롯한 1960년대의 많은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집단은 1960년대에 생활의 질, 자립, 자기결정, 참가 등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였고, 자신들의 권리향상에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Gartner

1) 여기서는 "서비스사회와 소비자의 선도자(The service society and the consumer vanguard)"(1974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Gartner가 여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왔던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이 저작에서 집약적으로 정리하였고, 따라서 Gartner의 소비자에 대한 사상과의 관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저서이기 때문이다.

는 사회변혁과 개인의 권리향상에 관심이 높은 이들 집단을 소비자의 선도자로 규정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온 주체로 인식하였다.

Gartner는 평등사회를 지향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의 선도자가 주도하는 사회변화에 의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Gartner는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상류층 또는 중류층을 형성하는 산업노동자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비자를 상정하였으며, 그들은 억압당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등사회 실현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2) 휴먼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미국에서 1960년대의 대부분 운동은 권력의 정당성에 도전하여 관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는 휴먼서비스 분야에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에 전문가중심주의(professionalism)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소비자'라는 용어가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용어에는 전문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 전문가와의 평등한 지위관계에 대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었다²⁾.

전문가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전에는 학생, 환자, 클라이언트 등으로만 불리던 사람들이 '소비자'로 불리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휴먼서비스 관련 문헌에 '소비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Gartner에 따르면 "소비자라는 용어의 변화는 서비스가 주어지는[sic] '대상자'에서 서비스에 관한 권리[sic]를 갖는 '소비자'로 이행했다는 것을 뜻한다"(Gartner, Greer, & Riessman, 1979, ix).

휴먼서비스에서 소비자라는 용어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실제적인 향상과 함께, 더욱 평등한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 가고자 하는 권리 지향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Gartner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전문가중심주의에 대한 신화와 그 엘리트주의를 향한 많은 비판은 적절한 것이었다"(Gartner & Riessman, 1974a, 11).

Gartner는 휴먼서비스의 실천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전문적 권위 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에 뒀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비자 자신이 많은 부분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라는 개념 그 자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개념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소비자운동의 맥락에서 지속되었다. 소비자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한 저항, 대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佐伯, 2003, 52-53). 실제로 탈산업사회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전문가와 소비자의 갈등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전통적인 대립에 대체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Bell, 1973). Schein(1972)에 의하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능력을 가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경제적 구성개념이다. 클라이언트(client)는 전문직의 전통적인 개념이며 객관주의자의 견해를 담고 있다. 그것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p. 9).

는 것이다(가트너·리스만, 1985, 14).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 전문가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심리요법, 교육 등의 서비스에서 전통적인 전문적 모델은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전문가와 소비자의 전통적인 관계는 196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참가의 에토스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진 점 등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가트너·리스만, 1985, 13).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비자중심주의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일까?

3. 소비자중심주의

Gartner의 소비자중심주의는 휴먼서비스의 실천에 소비자가 참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소비자의 참가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 휴먼서비스의 운영에 소비자가 참가할 것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지역사회 통제(community control)의 예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에서 지역사회 통제는 지역사회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흑인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운동이었다(Berube, 1994, 71). Gartner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이룬 것은 전문가의 자주성에 도전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의 권력을 ‘빼앗은(peeling off)’ 것이었다”(Gartner & Riessman, 1974a, 173-174). 일반인들은 그들(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받아 온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요구했고, 그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Gartner는 서비스제공 체제와 관련된 소비자의 참가는 현재의 서비스체제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극히 중요한 첫 단계이며,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Gartner & Riessman, 1974a, 174).

2) 소비자가 휴먼서비스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것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휴먼서비스에서 소비자가 폭넓고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과도 관계가 있다. 휴먼서비스 기관은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실천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이 실천은 자원의 증가 또는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과 병행되었다. 실천의 예로는 노년층, 여성, 청년, 비상근 노동자와 같이 일자리가 불충분했던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기술로서 이용하는 협의(consultation)의 활성화, 수행되고 있는 직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적자원을 배치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Gartner & Riessman, 1974a, 174-175).

3) 서비스 산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소비자를 참가시키는 것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서비스 산출에서 직접적인 요인으로 소비자를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참가시키는 것이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다. Gartner는 준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상담, 아동을 가르치는 일, 환자를 다루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대상자가 생산자가 된다. Gartner가 소개한 예는 할렘의 마약중독자 프로그램 환자가 아이들의 무료 조식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비행청년이 학습부진아동의 튜터가 되며, 메사츄세츠주의 형무소 수인이 맹인을 위해 점자책을 기록한다든지, 교사가 목표인 대학생이 6학년의 튜터가 되고, 6학년은 2학년의 튜터가 되는 프로그램 등, 이 그것이다(Gartner & Riessman, 1974a, 175-176).

이와 같이 휴먼서비스와 관련하여 Gartner가 생각한 소비자는 학생, 환자, 클라이언트 등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자를 비롯하여, 그 가족과 지역사회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다.

4. 소비자중심주의의 주요 요소

위에서 살펴본 Gartner의 소비자중심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문가와의 관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 통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휴먼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의 결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것, 즉,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휴먼서비스 실천에서 소비자가 전문가와 평등한 관계인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인식은 Gartner에 의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60년대에는 전문가가 항상 권위자(예, 의사는 최선의 것을 알고 있다)이고, 소비자는 서비스의 소극적인 대상자였던 불평등한 관계가 명백하게 변화되었다(Gartner & Riessman, 1974a, 160).

둘째,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에 대한 주장이다. 전문가중심주의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았다. 첫째, 전문가의 전문적 기술 및 이타주의의 결여, 둘째, 백인 남성이라는 특정계층에 편중된 전문가 구성, 셋째, 휴먼서비스의 지나친 비용.

소비자중심주의에서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에 관련된 주장은 위의 전문가중심주의의 첫째와 셋째 비판과 주로 연관되며, 이는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전문가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재하는 것이었다(Gartner & Riessman, 1974a, 175).

1960년대에는 특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권리 의식과 함께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Gartner는 휴먼 서비스 실천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전문가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가트너 · 리스만, 1985, 16).

서비스 생산과 소비자를 연관시켜 Gartner는 Riessman과 함께 ‘생산자로서의 소비자(consumer as producer)’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는 휴먼 서비스의 실천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생산자의 위치에 둔 것이다. Gartner는 “휴먼 서비스의 실천은 소비자중심이며, 이 부문에 생산력을 높이는 핵심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에 있다”(Gartner & Riessman, 1974a, 172)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그 예로는 또래교수(peer tutoring), 동료상담, 자조(self-help)조직, 의사가 환자에게 자기진단 방식을 가르치는 것, 교사가 아동을 학습에 열중시키는 것, 그리고 실천적인 모든 그룹치료 등을 들 수 있다(가트너 · 리스만, 1985, 18). Gartner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것은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한 특징이지만, 소비자를 생산자로 충분히 참가시켜 서비스를 조직하는 것으로, 그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III. A. Gartner의 통합교육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rtner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소비자 개념과 소비자중심주의와 관련되는 사상을 심화시켰다. 그 후 Gartner는 Lipsky와 함께 1980년대의 REI 논쟁과 1990년대의 inclusion 논쟁에 참여하면서 통합교육론을 주장하였다.

Gartner의 통합교육론은 크게 나누어 볼 때 특수교육비판과 교육개혁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의 특수교육비판은 의뢰와 평가절차의 문제, 학습장애 범주 비판, 최소제한환경과 배치문제, 교육성과에 대한 비판, 부모참가의 제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홍정숙, 2007 참조). 교육개혁구상은 Ronald Edmond의 ‘효과적인 학교’를 모델로 하여 일원적 제도를 주장하였다(Gartner & Lipsky, 1987, 389; Gartner & Lipsky, 1989a, 33).

1990년대에 Gartner가 주장한 통합교육론은 1980년대 REI 논쟁에서의 주장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었으나 일정한 변화 또한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1990년대의 통합교육론의 특징을 1980년대 주장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리=차별의 특수교육비판

1980년대에 Gartner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 실천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더욱 근본적인 비판으로 1980년대에 Gartner는 특수교육제도가 장애의 의학모델(*medical model*)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즉, 분리제도를 성립시키는 근원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장애의 의학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Gartner & Lipsky, 1987, 367-368; Gartner & Lipsky, 1989a, 19).

그러나 1990년대에는 통합교육을 공정과 권리(*equity and rights*)의 문제로 제기하기 시작했다(Lipsky & Gartner, 1996, 763).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은 일반적으로 인종과 언어적 마이너리티, 여성, 그리고 빈곤층의 교육을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였으며, 장애아동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Gartner는 통합교육을 공민권의 문제로 보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Lipsky & Gartner, 1992, 28-29; Lipsky & Gartner, 1996, 764, et al.). 이 주장의 의미는 Gartner가 예로 들고 있는 Albert Shanker와 Frank Laski와의 논쟁에서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당시 Shanker는 전미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의 회장이었으며, Laski는 중도장애인협회(The Association of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TASH)의 지도자로 특수교육소송가라는 위치에 있었다.

우선 Shanker는 통합교육이 공민권의 문제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Shanker는 “흑인의 분리(*segregation*) 문제는 그들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피부색 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ski는 “흑인의 분리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지적능력을 근거로 하는 분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론하였다. 즉, Laski의 경우, 피부색과 지적능력을 동일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aski는 “장애인은 흑인과 그 밖의 억압받는 마이너리티와 동일한 토대 위에서 있다”고 주장했다(Lipsky & Gartner, 1992, 15; Lipsky & Gartner, 1996a, 764-765). Laski의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통합교육을 공민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의 배경에는 ‘마이너리티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완전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장애인관은 장애의 고유한 결과로 곤란을 겪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이너리티 집단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이 인식은 일부 장애인권운동가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그들은 흑인이나 그 밖의 인종·민족적 마이너리티 집단과 같이 장애인도 억압된 마이너리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권운동은 1960년대의 공민권운동을 모방한 것이다(Hallahan & Kauffman, 1997, 54-55).

1990년대에 Gartner 또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마이너리티로 규정하여 공민권으로서의 통합교육을 주장하였다³⁾. 즉, 흑인을 비롯한 마이너리티 집단의 분리=차별, 장애아=마이너리티 집단, 장애아의 분리=차별이라는 논리는 Gartner가 특수교육제도를 비판하고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장애인을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인이 다른 억압된 마이너리티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법적인 권리나 공민권을 요구하는 싸움에 장애인도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hn, 1989, 227-228). 또한 이 접근은 기능적인 장애(impairment)보다 ‘차별적인 태도’야말로 장애의 핵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버너즈, 2004, 101).

2. 「제 3의 물결」의 교육개혁주장

1990년대에는 통합교육을 뜻하는 용어가 이전의 mainstreaming에서 inclusion으로 변화되었다. inclusion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Gartn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통합교육은 중도장애아를 포함하는 장애아에게 인근학교의 연령에 맞는 일반학급에서 아동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나 보조교사를 동반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의 목표는 장애아를 사회에 충분히 공헌하는 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National Study[1994]5)⁴⁾.

이 정의를 살펴보면 중도장애아를 포함하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서 함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중도장애아를 위한 교육배치를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으로 주장했던 것(Gartner & Lipsky, 1987, 386)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Gartner의 주장이 더욱 급진적이며 낙관적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일반교육개혁의 동향과 관련이 있었다. REI 논쟁기와 inclusion 논쟁기의 일반교육개혁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다.

미국 특수교육계에서 REI 논쟁이 발생한 시기는 미국 전역에서 교육개혁운동이 다

3) "The basic way in which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has influenced inclusive education is the movement's insistenc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apable and as a matter of right (i.e., they do not have to "earn" this) are entitled to be full contributing and participating members of the society. In effect, it is that part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which borrowed from the Black civil rights movement the concept that separate is not (cannot ever be) equal"(Gartner와의 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함).

4) Gartner는 자신이 속한 뉴욕시립대학의 교육 재구조화와 통합교육에 관한 전국센터(National Center on Educational Restructuring and Inclusion: NCERI)에서의 협의에 의해 inclusion을 정의했다(Lipsky & Gartner, 1996a, 763).

채로운 전개를 보였던 시기였다. 1980년대의 교육개혁은 일반적으로 ‘제 1의 물결’로 불렸다. 이 교육개혁운동은 주지사 및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의 주도 하에 전개되어, ‘톱다운(top-down)’ 방식이 그 특징이었다. 또한 학업성취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전에는 비교적 느슨했던 주의 규제가 강화되어, 지방학구 및 학교는 새롭게 주가 정한 범규를 준수해야만 했다(Goodlad, 1993, 1-3). 많은 주는 포괄적인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설정, 연간수업일수의 연장, 학력테스트의 의무화 등 학력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성기간연장 및 교육과정개혁, 면허요건 엄격화, 업적별 급여제도를 포함하는 급여개선책 등을 도입하였다(Lipsky, 1992, 42).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개혁의 ‘제 1의 물결’은 ‘제 2의 물결’로 이행되었다. 제 1의 물결에서의 ‘톱다운’ 방식에 대한 한계가 비판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의 학력향상은 궁극적으로는 개개 학생의 수업=학습 과정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학급 및 학생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수행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개혁의 제 2의 물결에서는 주에서 지방학구나 학교 수준으로 개혁의 주체가 옮겨졌다. 제 2의 물결에서는 ‘바텀업(bottom-up)’ 개혁이 지향되었으며, 각 학교나 지방학구 수준에서 학교개혁은 ‘재구조화(restructuring)’로 불려졌다(今村, 1990).

Gartner는 개혁의 ‘제 2의 물결’을 “모든 학생을 지원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학교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Lipsky & Gartner, 1990, 51)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통합 학교(inclusive school)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학교조직이나 교실에서의 지도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제 2의 물결에서는 각 학교 또는 각 지방학구를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나 보호자의 역량강화, 또한 재원이나 인재 등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교육개혁이 지향되었으며, 여기에는 교사의 자기결정의 존중과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 1의 물결’이 교육과정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주 주도의 개혁이었던 점과 대조적이었다(Lipsky, 1992, 42).

Gartner가 생각한 것처럼, 일반교육개혁의 제 2의 물결은 통합교육의 진전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에 들어 재구조화가 실행에 옮겨짐에 따라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교개혁이 지향되기 시작했다. 인구구성비에서 마이너리티와 메이저리티의 관계가 21세기에는 역전된다는 제반 통계를 앞에 두고 마이너리티는 1990년대의 교육개혁의 주된 대상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그 배경이다(Winzer & Mazurek, 2000, 238-256).

Gartner는 통합교육에 관한 전미 실태조사를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많은 지역학구에서는 통합교육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광범위한 재구조화의 일환이 되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통합교육은 재구조화의 결과이며, 통합교

육의 개발이 재구조화로 이어진 지역학구도 있다(Lipsky & Gartner, 1996d).

한편 Hocutt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Gartner가 통합교육의 진전 가능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개혁의 '제 2의 물결'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장애아동이 아니었다(Hocutt, Martin, McKinney, 1990, 24-25). Gartner도 교육개혁의 제 2의 물결은 소위 장애위험(at risk)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Lipsky & Gartner, 1990, 51; Sailor et al., 1992, 25). 따라서 Gartner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고려한 개혁의 '제 3의 물결'을 주장하게 된다(Lipsky & Gartner, 1990; Lipsky & Gartner, 1992; Lipsky & Gartner, 1997).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IV. 소비자중심주의와 통합교육론의 연관성'에서 다루기로 한다.

3. 통합교육의 목표

1980년대에 Gartner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를 목표로 하며 이것과 조화되는 일원적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 둘째, 모든 아동을 학급과 학교에 받아들여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 셋째, 지역사회의 모습, 더 나아가 사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가 그것이다(Gartner & Lipsky, 1987; Gartner & Lipsky, 1989a, et al).

1990년대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학교의 재구조화에 의해 민주제사회의 본질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 둘째, 모든 아동을 민주제사회에서 생산적으로 공헌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하는 것, 셋째, 통합과 공정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태도를 장애아 및 비장애아 모두가 키우도록 하는 것(Lipsky & Gartner, 1996a, 767).

1980년대에 Gartner가 추구한 통합사회와 이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교육의 일원적 제도는 관용과 수용의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실현을 사회인들이나 교사, 비장애아의 태도의 변화에서 구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장애아(인)에 대해 관용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아(인) 옹호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이 요구는 일방적인 관계이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숙해간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장애아(인)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람들이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관점도 없었다. 단지 도덕적 공동체인 학교에서 장애아를 배제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Gartner는 장애아를 '비장애아의 학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로 인식했다. 또한 학급을 '학습 공동체'로, 장애아를 '급우와의 협력적인 worker'로 규정했다(Lipsky & Gartner, 1996a, 789-790; Lipsky & Gartner, 1999, 14-15, et al). 즉, Gartner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애아가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급우와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 더 나아가서는 장애아의 존재에 의해 비장애아의 세계가 넓어진다고 인식했다. 1980년대에는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통합의 문제를 논했던 것에 비해, 1990년대에는 모든 아동으로 그 초점을 옮기면서 통합과 공정,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민주제사회의 본질로서 통합교육을 추구해 갔던 것이다.

IV. 소비자중심주의와 통합교육론의 연관성

이상에서 Gartner의 1960·70년대의 소비자중심주의를 중핵으로 하는 사상과 1980년대 이후의 통합교육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양 사상의 관련성을 그 유사성과 일관성에 근거하여 구명함으로써 전자가 후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소비자의 권리향상을 통한 평등사회와 민주제사회의 추구

Gartner는 일관되게 ‘배제(exclusion)’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회·경제생활의 주류에서 배제된 집단을 사회 주류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된 집단은 Gartner의 경우 ‘소비자’라는 용어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소비자라는 용어는 ‘권리가 향상된 집단’이면서도 ‘차별받는 집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Gartner가 관심을 가진 대상은 1960·70년대에는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장애인이었다. ‘배제’와 ‘참가’의 문제는 Gartner가 추구한 사회-평등사회, 통합사회, 민주제 사회-에도 반영되었다. 우선 1960·70년대에 Gartner는 평등사회를 추구하였다. 이 평등의 문제를 그는 ‘소비자’와 관련지어 인식했다. 소비자의 인식과 권리의 향상,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특히 그는 마이너리티, 여성, 청년을 소비자의 선도자로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당해 가장 권력과 지위를 박탈당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Gartner는 그들에 대한 차별을 권리나 참여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평등사회로의 여정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Gartner가 추구한 평등사회의 특징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목표로 삼은 통합사회 및 민주제 사회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일까? Gartner는 평등사회와의 관련에서 마이너리티를 중심으로 ‘배제’나 ‘참가’의 문제를 음미했던 것에 비해, 통합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배제되고 차별당하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1980년대에 Gartner가 주장한 통합사회는 장애인이 “노동자,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참가가 가능한 사회”(Gartner & Lipsky, 1987, 387)를 말한다. 이에 비해 현 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무력화하는 태도의 세계였다.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Gartner는 장애인권운동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인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⁵⁾. 이는 Gartner가 1960년대에 마이너리티 등의 권리향상과 사회인의 의식변혁의 측면에서 평등사회로 향하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과 유사하다. 더욱이 Gartner가 지지하는 장애인권운동은 1960년대의 공민권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다.

1980년대부터 장애인을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인식하는 장애인권운동의 기반을 가지게 된 Gartner는 1990년에는 이러한 논리를 장애학생의 교육문제에도 적용시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교육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목표로 하는 사회를 통합사회에서 민주제사회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에 장애아동에게 초점을 맞춰 통합의 문제를 다루었던 데 비해, 1990년대에는 모든 아동에게 그 초점을 넓혀 가면서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민주제사회의 본질로서의 통합교육을 추구해 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소비자중심주의와 아동을 중심에 둔 교육개혁의 구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rtner는 소비자의 문제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인식하면서, 휴먼서비스에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중심주의에 근거하여 휴먼서비스의 실천 수준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생산자로서의 소비자’로 규정하였다. 1960·70년대에 Gartner가 휴먼서비스와 소비자에 관해 말할 때, 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특히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Gartner의 소비자중심주의가 통합교육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5) 1980년대부터 Gartner는 장애인은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Lipsky & Gartner, 1989, 74)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애권리운동과 관련된 주장을 하게 된다. Gartner와 장애인권운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Gartner가 편집을 담당한 1987년의 “장애인의 이미지, 무력화하는 이미지(Images of the disabled/disabling images)”라는 제목의 저서는 저명한 장애인권운동가의 비평을 다수 수록한 것으로, 문학, 영화, TV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묘사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실제 상태보다도 장애인을 무력화하는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밝혔다(Gartner & Joe, 1987). Barnes에 따르면 장애를 문화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장애인권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다(Barnes, 2004, 246).

1) 교수를 통한 학습(learning by teaching)

교육 분야에서 ‘소비자’의 개념은 ‘아동(학생)’을,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개념은 ‘생산자로서의 아동(학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생산자로서의 아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Gartner는 이 개념을 교육실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려 했던 것일까?

우선, ‘생산자로서의 아동’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을 종래의 소극적인 수령자로서가 아니라 학습의 생산에서 worker로서 인식한 것, 아동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자로서 참가 가능한 활동을 중시한 것, 교사나 설비 등의 외부 요소는 아동의 교육성과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 교육 분야에서 소비자가 아동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시한 것이 그것이다(Gartner & Riessman, 1974a, 182- 183).

이러한 개념을 Gartner가 어떻게 교육실천에 구현하려 했던가는 “최선의 학습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다”(가트너·리스만, 1985, 122; Gartner & Riessman, 1977a, 103)라는 표현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Gartner는 아동이 스스로 학습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력자 치료 원칙(helper-therapy principle)’을 원용했다. 이는 ‘원조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더욱 원조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Gartner, 1971b; Gartner, Kohler & Riessman, 1971; Gartner & Riessman, 1974d; 가트너·리스만, 1985 et al).

교육 분야에 조력자 치료 원칙은 ‘아동이 다른 아동을 가르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Gartner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력자 치료 원칙은 아동이 다른 아동을 가르친다고 하는 튜터에 관한 유명한 연구 성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많은 증거에서 보듯이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아동이 더욱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동료로부터 배우는 프로그램은 옛날 고대 로마로부터 전해내려 왔으나, 가르치는 이의 이익이 강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가트너·리스만, 1985, 122).

Gartner는 ‘아동과 청년은 교실에서 배우는 쪽일 때보다 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이 아동을 가르치기-교수를 통한 학습(Children teach children: Learning by teaching)』에도 잘 나타나 있다(Gartner, Kohler & Riessman, 1971). 다양한 형태의 튜터 프로그램은 1960년대 초기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Gartner, Kohler, & Riessman, 1971, 4), 상기의 공저는 현대의 튜터링에 관한 최초의 저서였다(Gartner & Lipsky, 1990a, 82).

‘교수를 통한 학습’ 개념은 1960년대의 다음과 같은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직원 배치, 지도의 개별화, 조력자 치료와 인간의 잠재력개발운동, 더 많은 교수자원의 필요성, 학교 내의 경쟁에 대한 비판과 더 협동적인 학습 환경에의 요구, 서

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의 소비자를 이용하기, 학교에 대한 책무성의 요구, 학교의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 참가의 프로세스에 관한 새로운 강조가 그것이다(Gartner, Kohler, & Riessman, 1971, 5).

Gartner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경비절약의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도(가트너·리스만, 1985, 139), 경비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도 사실이다(Gartner & Riessman, 1974d).

2) 1980년대 교육개혁비판에서의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개념

Gartner의 ‘생산자로서의 소비자’의 개념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교육 사상에 계승되고 있다. 그 예는 “나오되는 아동(The Children are missing)”(1985)이라는 논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Gartner가 1980년대의 교육개혁을 비판한 논문이다.

Gartner가 1980년대의 교육개혁을 비판한 이유는 “모든 교육 개혁안이 거의 대부분 수업일수와 수업연한, 졸업을 위한 과목이수의 요구, 교사의 자격 등 외부 요인에 초점이 맞춰졌고,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Gartner, 1985, 32) 때문이다.

1980년대 일반교육개혁의 동기가 교육학적 필요성이나 관심에서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Gartner는 이러한 교육계의 맥락 속에서 아동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인식하였다.

Gartner는 아동에 대한 경시가 학교를 ‘아동에게 학습을 전달하는 장소’로, ‘아동을 수령자’로 인식하는 개념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Riessman과 함께 고안한 ‘생산자로서의 소비자’의 개념을 원용했다. 즉, “아동을 worker로서, 혹은 자기 학습의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교사와 아동의 역할에 관한 변화를 추구하여, 학교에서 생산자는 아동이다”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Gartner, 1985, 32).

1970년대에는 지역사회의 참가 등을 강조하면서 ‘조력자 치료 원칙’에 근거해 ‘아동이 아동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이 논문에서 Gartner는 학교 조직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즉, “직원, 교육과정, 시간 등을 포함한 학교 조직을 아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교사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전체 활동과 그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고, worker로서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며, 목표를 세워 그 수행을 평가하고, 아동이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준다”(Gartner, 1985, 32).

주목할 만한 것은 Gartner가 또래교수(peer instruction)를 강조한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부터 Gartner가 관심을 가진 교육실천 방법이며, 통합교육의 주장에 있어서도 주요한 교수전략으로 언급되고 있다. Gartner는 또래교수를 아동의 흥미를 끄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Gartner에 의하면 “튜터의 역할을 하면서 아동은 가르치는 것에서 배우고 교수와 학습 양쪽에서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며, 이 이익은 아동에 대한

교육학적 가치, 그리고 역량강화(empowering)의 가치를 넘어서, 또래교수가 다양한 교육적 개입에서 가장 경비절감 효과가 높다는 결과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Gartner, 1985, 32).

3) ‘제 3의 물결’의 교육개혁구상

1990년대에 Gartner가 교육개혁의 제 2의 물결에 이어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을 제창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Gartner가 제안한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은 “모든[sic] 아동을 성공리에 함께 교육하는 일원화된 제도를 지지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제도의 분리를 거부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Lipsky & Gartner, 1997, 235)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의 제 2의 물결에서는 장애위험 아동에 그 관심이 집중됐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변화는 주변을 어중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Lipsky & Gartner, 1990, 51).

1980년대에 Gartner는 일원적 교육제도와 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학교와 효과적 수업실천 등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비해 1990년대의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 제안은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Gartner는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의 원칙을 정리하고 있는데(Lipsky & Gartner, 1990; Lipsky, 1992; Lipsky & Gartner, 1997, et al), 이런 새로운 개혁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강조되었다.

- 첫째, 아동의 장점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설계한다.
- 둘째, 아동의 능동적 학습활동을 권장한다.
- 셋째, 아동을 평생 학습자로 위치 짓는다.
- 넷째, 아동의 실패를 학교 측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 다섯째, 부모와 지역사회를 동반자로 참여시킨다.
- 여섯째,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 일곱째, 아동들 간의 차이를 장점으로 보고자 한다.

Gartner의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 개혁이 ‘아동을 중심에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Lipsky & Gartner, 1990; Lipsky, 1992; Lipsky & Gartner, 1997). Gartner에 따르자면 이는 “학습의 생산자는 아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Lipsky & Gartner, 1990, 49). Gartner는 ‘아동을 중심에 두는’ 개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교육개혁의 중심에 아동을 두는 것으로 미국의 공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여성차별주의, 장애인차별주의, 계층의 분열, 혹은 빈곤의 사회적 영향과 만연된 폭력을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재정이나 유능하고 열심인 교원의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오

히려 그것은 모든 아동을 도와 성공시키는 학교를 확립하고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기여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개혁 활동의 개념적인 틀을 제공한다(Lipsky & Gartner, 1997, 212).

이와 같이 교육개혁의 '제 3의 물결'의 원칙은 '아동을 중심에 두는' 개념의 틀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이 개념은 학습의 생산자로서 아동의 중심적이며 유익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1960년대 Gartner의 '생산자로서의 아동'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들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통합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통합교육론자인 A. Gartner의 통합교육론과 그 사상적 배경을 미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60·70년대에 Gartner가 주장한 소비자 개념과 소비자중심주의는 1980·90년대의 통합교육론에 일관되게 반영되었으며, 전자가 후자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중심의 교육개혁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제사회를 지향하는 Gartner의 통합교육론에는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향상에 대한 지향과 소비자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그의 통합교육론은 이념적으로 바라볼 때 반대의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이념의 실현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며, 집단성을 강조하여 다양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1960, 70년대에 Gartner는 마이너리티, 여성,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문제를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가능한 많은 힘을 합치기 위해서도, 획일적인 목표가 설정되기 전에 각 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경향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Gartner가 개별 장애 범주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아(인)라는 집단의 차별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아(인)의 마이너리티론에 근거하는 분리=차별의 주장은 특히 감각장애 등의 저출현 장애의 독자성과 그 교육유산을 경시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사회적 문제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애의 범주를 구별하지 않고 특수교육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中村滿紀男 · 岡典子 · 조원일, 2005).

또한 중도장애아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Gartner의 주장은 또래교수와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그의 교수전략만으로는 달성이 곤란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artner가 1960년대부터 많은 관심을 보였던 또래교수는 교육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철학이 잘 반영된 방법론이라는 점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한편 Gartner의 소비자중심주의의 핵심요소인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개념은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함께 비용에 적합한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참여를 최대한 촉진하여 서비스를 조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경비절감이나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에 대해 관심이 높았으며, 이는 특수교육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바탕이 되었다.

Gartner는 1980·90년대에 특수교육을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비판하였다. Dyson은 "통합교육과 학교개혁-미국학급의 변혁"(Lipsky & Gartner, 1997)을 예로 들어, "효율성에 관해, 통합교육이 분리교육보다 우월하다는 살라망카 선언의 주장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현재 이들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경험적 증거가 이 책에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Dyson, 1999, 41).

특히, 1990년대에 Gartner의 효율성과 관련한 특수교육비판은 교육행정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수교육과 보상교육을 비롯한 특별프로그램의 대상자가 급증하여 그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홍정숙, 2006b). 따라서 재정적 문제에 봉착한 교육행정 측이 완전통합교육을 지지하여 특별 프로그램의 재원을 일반교육에 환원하는 형태로 일반교육과 특별프로그램의 이원적 구조를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전국주교육위원회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NASBE)와 같은 권위 있는 조직이 완전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 김정권, 한현민(2001)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개념 논쟁. **교육과정평가연구**, 4(1), 161-185.
- 민천식, 이애현(2001)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논쟁에 대한 패러다임적 고찰. **발달장애학회지**, 5(1), 175-188.
- 이인경(2003) 미국 통합교육의 변천과정과 성격에 비추어 본 한국적 통합교육 제안(1): 통합체육을 위한 통합교육의 성격구명.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2), 25-43.
- 이인경(2004) 미국 통합교육의 찬·반 논쟁에 비추어 본 한국적 통합교육의 재조명.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2(1), 1-17.
- 中村滿紀男·岡典子·조원일(2005) 완전통합교육론과 저출현 장애아교육의 모순-미국 시각장애아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301-322.
- 홍정숙(2006a) 미국 통합교육론의 사상적 원천에 관한 연구(I)-휴먼서비스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583-600.
- 홍정숙(2006b) 미국 통합교육의 역사-메인스트림과 일반교육주도의 역사적 전개와 사회적 배경에 관한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8(4), 189-211.

- 홍정숙(2007) 일반교육주도의 특수교육 찬반 쟁점과 시사점-학습장애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 연구**, 9(2), 41-60.
- 가트너, A·리스만, F., 久保絃章監譯(1985) 셀프·헬프·그룹의理論と實際. 河島書店.
- 今村令子 (1990) 永遠の「双子の目標」-多文化共生の社會と教育. [現代アメリカ教育 2卷]. 東信堂.
- 中留武昭 (1987)アメリカ教育經營の新しい試み-1980年代教育改革の經營改善-. 教育經營の國際的動向, 日本教育經營學會. ぎょうせい. 129-144.
- 清水貞夫 (1997) 新たなメインストリーミング解釋としてのインクルージョン-合衆國でのインクルージョン-. 發達障害研究, 19(1), 1-11.
- バーンズ, C., 마르サー, G., 셰익스피어, T., 杉野昭博その他譯(2004) 디스아빌리티·스타디ーズ. 明石書店.
- 竹嶋龍雄·金田鈴江 (1998) アメリカにおける障害児教育の展望-學校最構造化とRegular Education Initiative, 인클루저션-. 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第一部 (教育學), 47, 241-249.
- Andrew, J.E., Carnine, D.W., Coutinho, M.J., Edgar, E.B., Forness, S.R., Fuchs, L.S., Jordan, D., Kauffman, J.M., Patton, J.M., Paul, J., Rosell, J., Schiller, E., Skrtic, T.M., & Wong, J.(2000) Bridging the special education divide.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1(5), 258-260, 267.
- Bell, D.(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Inc., Publishers.
- Berube, M.R. (1994) *American school reform: Progressive, equity, and excellence movements, 1883-1993*. Westport et al.: Praeger.
- Dyson, A. (1999) Inclusion and Inclusions: Theories and discourses in inclusive education. In H. Daniels., & P. Garner(Eds.), *Inclusive education*(pp. 36-53). London: Kogan Page.
- Dyson, A., & Millward A. (2000) *Schools and special needs: Issues of innovation and inclusion*.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 Gartner, A.(1969) *Do paraprofessional improve human services: A first critical appraisal of the data*.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Careers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1971a) *Paraprofessionals and their performance: A survey of educa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 programs*. New York et al.: Praeger Publishers.
- Gartner, A.(1971b) Consumer as deliverers of service. *Social Policy*, 16(4), 28-32.
- Gartner, A. (1972) *A course outlines for a two-year teacher aide progra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New Career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1976) *The preparation of human service professionals*.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artner, A.(1983) Ronald Edmonds, 1935-1983: Silenced voice for children. *Social Policy*, 14(2), 5-6.
- Gartner, A. (1984) Disabling images. *The Disability Rag*, 3-4.
- Gartner, A.(1985) The children are missing. *Social Policy*, 15(4), 32-33.
- Gartner, A.(1986) Disabling help: Special education at the crossroads. *Exceptional Children*, 53(1), 72-76.
- Gartner, A., & Nina, J. (1968) A career development plan for community action agencies. ED 039 471.
- Gartner, A., & Riessman, F. (1968) *Paraprofessionals, their organization, and the unions*.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Careers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 & Schroeder, J. (Eds.) (1968) *New careers newsletter, Vol. II, No. 5*.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New Careers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 & Riessman, F. (1971a) *The transformation of training: New kinds of consumer based services require new kinds of training—Based on participatory simulation*.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Careers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 & Riessman, F. (1971b) *The performance of paraprofessionals in the mental health field*.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Careers Development Center.
- Gartner, A., Kohler, M.C., & Riessman, F. (Eds.) (1971) *Children teach children: Learning by teaching*. New York et al.: Harper & Row, Publishers.
- Gartner, A., & Riessman, F. (1972) Changing the professions: The new careers strategy. In R. Gross & P. Osterman(Eds.), *The new professional*(pp. 269-290). New York: Simon & Schuster.
- Gartner, A., & Nixon, R.A., & Riessman, F. (Eds.) (1973) *Public service employment: Analysis of its histor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Gartner, A., & Riessman, F. (1974a) *The service society and the consumer vanguard*. New York et al.: Harper & Row, Publishers.
- Gartner, A., & Riessman, F. (1974b) Strategies for Large-scale educational reform. *Teachers College Record*, 75(3), 349-355.
- Gartner, A., & Riessman, F. (1974c) The paraprofessional movement in perspectiv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3(4), 253-256.
- Gartner, A., & Riessman, F. (1974d) Children: Workers in their own learning. A New Basis for the Organizing of Schools. ED 102 057.
- Gartner, A., Greer, C., & Riessman, F. (Eds.) (1974) *The new assault on equality*. New York et al.: Harper & Row, Publishers.
- Gartner, A., Lynch, W., & Riessman, F. (Eds.) (1976) *A full employment program for the 1970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Gartner, A., & Riessman, F. (1977a) *Self-help in the human services*. San Francisco et al.: Jossey-Bass Publishers.
- Gartner, A., & Riessman, F. (1977b) *How to individualize learning*. The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Bloomington, Indiana.
- Gartner, A., Jackson, V.C., & Riessman, F. (Eds.) (1977) *Paraprofessionals in education today*.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artner, A., Taylor, M., & Trudsdell, L.A. (1979) Educational service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 study of their delivery and recommen-dations. Executive Summary. ED172 490.
- Gartner, A., Greer, C., & Riessman, F. (Eds.) (1979) *Consumer education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et al.: Pergamon Press.
- Gartner, A., & Riessman, F. (Eds.)(1984) *The self-help revoluti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artner, A., Greer, C., & Riessman, F. (Eds.) (1984) *Beyond Reagan: Alternative for the 80's*. New York et al: Harper & Row, Publishers.
- Gartner, A., & Joe, T. (1987) *Images of the disabled, disabling imag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Gartner, A., & Lipsky, D.K. (1987) Beyond separate education: Toward a quality system for all students. *Havard Educational Review*, 57(4), 367-395.
- Gartner, A., & Lipsky, D.K. (1989a) The yoke of special education: How to break it. Part of the Federal Role in Education Working Paper Ser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7 792)
- Gartner, A., & Lipsky, D.K. (1989b) School administation and financial arrangements. In S.

- Stainback., W. Stainback & M. Forest. (Eds.), *Educating all students in the mainstreaming of regular education*(pp. 105-120).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Gartner, A., & Lipsky, D.K. (1990a) Students as instructional agents. In W. Stainback & S. Stainback(Eds.), *Support networks for inclusive schooling: Interdependent, integrated education*(pp. 81-94).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Gartner, A., & Lipsky, D.K. (1990b) New conceptualizations for special education. In S.B. Sigmon(Ed.), *Critical voices on special education: Problems and progress concerning the mildly handicapped*(pp. 175-182).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artner, A., Lipsky, D.K., & Turnbull, A.P. (1991) *Supporting families with a child with a disability: An international outlook*. Baltimore et al: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Gartner, A., & Lipsky, D.K. (1995) *Inclusion for all: Building on the tools of blindness*. Braille Monitor, 612-614.
- Gartner, A., & Lipsky, D.K. (1998) The 1997 reauthorization of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NCERI Bulletin, Spring. ERIC308 050.
- Gartner, A., & Lipsky. (2002) *Inclusion: A service, not a place a whole school approach*. New York: Dude Publishing.
- Goodlad, J.I.(1993) Access to knowledge. In J.I. Goodlad., & T.C. Lovitt(Eds.), *Integrating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pp. 1-22). New York et al.: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ahn, H. (1987) Civil right for disabled Americans: The foundation of a political agenda. In A. Gartner, & T. Joe(Eds.), *Images of the disabled, disabling images*(pp. 181-203).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Hahn, H. (1988) Can disability be beautiful? *Social Policy*, 18, 26-32.
- Hahn, H. (1989) The politics of special education. In D.K. Lipsky and A. Gartner.(Eds.). (1989) *Beyond separate education: Quality education for all*(pp. 225-241). Baltimore, et al: Paul H. Brookes.
- Hallahan, D.P., & Kauffman, J.M. (1997) *Exceptional learners: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7th ed.), Allyn and Bacon.
- Hocutt, A.M., Martin, E.W., & McKinney, J.D. (1990) Historical and legal context of mainstreaming. In J.W. Lloyd., N.N. Singh., & A.C. Repp(Eds.), *The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Alternative perspective on concepts, issues, and models*(pp. 17-28). Sycamore, IL: Sycamore Publishing Co.
- Lilly, M.S.(1987) Lack of focus on special education in literature on educational reform. *Exceptional Children*, 53(4), 325-326.
- Lipsky, D.K.(1992) We need a third wave of educational reform. *Social Policy*, 43-35.
- Lipsky, D.K., & Gartner, A.(1990) Restructuring for Quality. In F.W. Lloyd., N.N.Singh., & A.C. Repp(Eds.), *The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alternative perspective on concepts, issues, and models*(pp. 43-56). Sycamore, IL: Sycamore Publishing Company.
- Lipsky, D.K., & Gartner, A.(1992) Inclusive education and school restructuring. In W. Stainback and S. Stainback(Eds.), *Controversial issues confronting special education*(pp. 3-15). Allyn and Bacon.
- Lipsky, D.K., & Gartner, A.(1996a) Inclusion, school restructuring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socie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4), 762-796
- Lipsky, D.K., & Gartner, A.(1996b) Inclusive education and school restructuring. In W. Stainback & S. Stainback(Eds.), *Controversial issues confronting special education*(2nd) (pp. 3-15). Boston et al.: Allyn and Bacon.

- Lipsky, D.K., & Gartner, A.(1996c) Equity requires inclusion: The future for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 Christensen & F. Rizvi(Eds.), *Disability and the dilemmas of education and justice*(pp. 144-155).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Lipsky, D.K., & Gartner, A.(1996d) *National study on inclusion: Overview & summary report*. National Center on Educational Restructuring and Inclusion.
- Lipsky, D.K., & Gartner, A.(1997) *Inclusion and school reform: Transforming America's classrooms*. Baltimore, et al: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Lipsky, D.K., & Gartner, A.(1999) Inclusive education: A requirement of a democratic society. In H. Daniels., & P. Garner(Eds.), *Inclusive education*(pp. 12-23). London: Sterling, VA: Kogan Page.
-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of educational reform*.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s boards of education(1992) *Winners all: A call for inclusive schools*. Alexandria, VA: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s boards of education(1995) *Winning ways: Creating inclusive schools, classrooms and communities*. Alexandria, VA: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
- National center on educational restructuring and inclusion(1994) *National study of inclusive education*.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National center on educational restructuring and inclusion(1995) *Challenges to the current special education*.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Pugach, M., & Sapon-Shevin, M. (1987) New agendas for special education policy: what the national reports haven't said. *Exceptional Children*, 53(4), 295-299.
- Sailor, W., Gee, K., & Karasoff, P. (1992) School restructuring & full inclusion. California Research Institut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ED 365 050)
- Sapin-Shevin. M.(1987) The national education reports and special education: Implications for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53(4), 300-306.
- Schein, E.H.(1972) *Professional education: some new directions*. New York: McGraw-Hill.
- Skrtic, T.M.(1995) *Disability and democracy: R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for postmodern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Winzer, M.A., & Mazurek, K. (Eds.) (2000) *Speci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Issues of inclusion and reform*.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A Study of Inclusive Educational Theory and Its Ideological Context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A. Gartner

Jeongsuk, Hong
Daegu University

<Abstract>

Inclusive education is an ideological issue as much as it involves educational policy and methods. However, in reality,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inclusive education and ideological approach to the subject lacks depth. In Korea, discourse on the inclusive education is greatly affected by the American tradi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 Gartner's inclusive educational theory, who is a leading figure in the field and illuminates its ideological background under the American social context in order to acquir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cept of consumer and consumerism that Gartner supported in the 1960s and 70s were consistently reflected in his later proposi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al theory in the 1980s and 90s: the former constitute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latter. In addition, the research suggested that although Gartner's inclusive education theory has ideological significance, it has limitation in overlooking variety by overly emphasizing collectiveness. Also, the research implied that emphasizing efficiency, which is a critical factor in consumerism became a basis to criticize inefficiency of special education.

Key Words: A. Gartner, Consumer, Consumerism, Inclusive Educational Theory

논문 접수: 2008. 11. 5 심사 시작: 2008. 11. 18 게재 확정: 2008. 12. 22